

배터리의 매직 “작지만 힘세다”

버스 안. 직장인 이모씨는 오늘도 출근 중에 위성 DMB폰으로 지난 밤 시청하지 못한 최신 인기 드라마를 시청한다. 대학생 박모군도 지하철에서 넷북(Net Book- 소형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온라인 서핑중이다.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됐고 개인 IT제품은 우리곁에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처럼 개인 IT제품이나 가전제품은 소형화와 제품의 사용시간 연장이 필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터리 기술이 있다.

최근 무게와 크기는 대폭 줄이고 수명과 용량을 늘린 배터리를 활용해 사용시간이 24시간인 노트북, 재생시간이 10시간이 PMP출시가 붐몰을 이루고 있다. 또 가볍고 강력한 배터리 기술을 도입한 소형무선전동공구, 소형무선청소기가 많이 선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배터리도 속속 등장한다. 최신 배터리를 활용해 제품 혁신을 이룬 무한도전 제품을 점검했다.

▲ 빠고 또 빠고, 배터리는 무한 다이아트 중

디지털큐브의 PMP ‘아이스테이션 T3’는 고성능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했지만 배터리 포함 전체무게가 250g으로 초경량화된 제품이다. 1600만 컬러 화면이 0.9cm(4.3인치)이고 두께는 16mm로 매우 슬림한 제품이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크게 개선돼 비디오 재생시간이 약 10시간, 슬립모드가 약 200시간이다. 디지털 큐브는 저전력 시스템의 개발로 기존 제품 대비 최대 40% 이상까지 배터리 재생시간을 늘렸다.

보쉬 전동공구사업부는 최근 수명이 길고 가벼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A4 한 장

흡입력이 일반 미니청소기보다 5배~10배 더 강력하고, 박테리아까지 걸러주는 루트 사이클론 시스템을 채택하여 한번 빨아들인 먼지는 절대로 내뿜지 않는다.

▲ 배터리도 친환경 시대

보쉬의 ‘메가파워실버 배터리’는 전기 전도성이 높은 실버합금으로 제작돼 갈슘 배터리에 비해 수명과 시동능력이 각각 30%가량 높다. 겨울철 혹한에도 시동능력이 높아 시동실패로 인한 유류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성능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내열성 및 내부식성이 우수해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높다. 이중 커버를 사용해 배터리의 밀폐성이 높으므로 자가 방전이 최소화되었다. 이에 수명이 길고 전해액 보

“현대건설은 ‘일자리 창출’ 많은 기업”



현대건설(사장 李鍾洙)이 최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에이스 클럽(Ace Company Employment Club)인증서’를 획득했다.

‘에이스 클럽(ACE CLUB)’이란 지난 1년간 신규 정규직원을 30명 이상 채용하고, 매년 30명 이상 3년간 100명 이상의 신규 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의 성과를 보인 ‘고용친화적인 좋은 일자리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현대건설은 지난해 대졸신입사원 채용을 당초 200여명에서 약 300명으로 확대해 채용하고 ‘청계천 잡페어(Job Fair)’를 통

해 국내 현장 근무직원 약 120명을 신규 채용했다.

현대건설은 국내의 현장 근무직원을 계속하여 충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공동과제인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나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불황과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업계 최고수준의 수주 실적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일감확보, 리스크 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사 수주와 사내의 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유지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진기자 flykij@ktnews.com



크기의 무선형 ‘충전 해머드릴 (GBH 36V-Li Compact)’을 출시했다. 보쉬의 충전 해머드릴은 가벼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무게는 2.9kg로 경량화됐고 크기는 A4 한 장(290x200mm)정도로 줄었다. 무게는 최소화되고 길이는 기존 전동해머 대비 9% 정도 줄었지만 수명이 4배 늘고 파위는 유선 해머드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 인기비결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노트북 피시의 사용시간 연장에는 배터리 용량 확대와 컴퓨터칩 제조기술 개선, 절전기술 채택이 동시에 작용했다.

휴렛팩커드(HP)의 노트북 ‘HP 엘리트 북(EliteBook) 6930p’는 대용량 배터리를 옵션으로 장착한 모델에 대해 산업 표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배터리 구동시간이 24시간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청소기 브랜드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DC16’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수명이 길어지고 충전시간은 짧아졌다. 3시간 충전 후, 6분 가량 사용할 수 있다. DC16은

중 등 보수가 전혀 필요 없는 친환경 제품.

보쉬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크기가 작고 효율이 높으며 환경도 해치지 않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시된 아수스의 넷북 ‘이피씨(Eee PC) 1000H+ Plus’는 기존 제품인 Eee PC 1000H에 친환경 전지인 폴리머 배터리를 추가한 제품이다. 폴리머 배터리는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없고, 장시간 사용에도 폭발 위험이 없는 것이 특징인 친환경 제품이다.

자연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친환경 충전기도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CES)에서 바람과 태양이라는 무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해주는 ‘스카이차저’를 선보였다.

강재진기자 flykij@ktnews.com

5만원권 5~6월에 나온다



5만원권 지폐가 5~6월께 시중에 유통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만원권의 완본은 2월에 공개되며 그 이후 2~3개월의 인쇄과정을 거쳐 5~6월께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만원권의 앞면에는 신사임당과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도(墨葡萄圖)’가, 뒷면에는 조선 중기의 화가인 어몽룡의 ‘월매도(月梅圖)’가 들어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하는 5만원권도 앞번호는 박물관에 보내고 경매 처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그 다음 번호를 가진 화폐를 한은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자칫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0만원권 발행추진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장성근 기자

작년 소주판매 8.7%증가 진로 ‘부동의 업계 1위’

(주)진로(대표 윤종용)의 지난해 소주 판매량이 2000년대 들어 최대 증가율인 전년비 8.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집계한 2008년 국내 소주제조사별 판매실적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해 8.7%증가한 5천973만4000상자(360ml 30본입 기준)의 소주를 판매해 소주시장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지켰다.

특히 진로의 12월 한달간 판매량은 635

만 9000상자로 진로 85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 소주 판매 성수기와 두산 주류 매각등의 요인이 겹쳐 진로의 12월 시장 점유율은 55.2%에 달했다.

연간 누계로는 국내 소주시장의 51.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2위를 차지한 두산은 1천 285만 3000상자의 소주를 판매해 전년비 5.2%증가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전년과 같은 11.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체 시장의 3.4위를 차지한 금복주와 대선은 각각 시장점유율 8.8%와 7.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혁 기자